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 성대히 진행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이 1월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은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뜻깊은 설맞이무대에서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설날을 노래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격정과 환희로 공연장소는 뜨겁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도착하시자 궁전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이 끝없는 걱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아버지원수님께 은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를 삼가 올리었다.

원수님께서 기량발표회를 하고있는 학생소년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궁전에 모신 감격과 환희가 춤물결되어 설레이는 원무장에서 오래도록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이 창안한 과학환상모형들을 보여주시었다.

원수님께서 학생들의 두뇌개발과 사유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원리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실질 씨름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특출한 미술적재능을 지닌 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신 원수님께서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여주시고 화법과 서예솜씨도 치해해주시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아버지원수님께 드리고싶다는 《포마미술가》의 청을 대견해하시면서 그의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사랑을 부여주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의 지적재량을 들어주시고 학습과 소년단생활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서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정책을 세우시어도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일먼저 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기꺼이 따다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뜨거운 정과 사랑속에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는 학생소년들의 자량이 뜻깊은 설맞이꽃무대에 펼쳐졌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주체의 붉은 당기아래서 후대들이 지덕체의 노래를 활짝 펴고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계승자들로 곳곳이 자라나고있는 현실은 강국의 가장 긍지스럽고 힘있는 모습이며 우리 시대와 혁명의 진정한 위대함이라는것을 가슴깊

이 절감하였다.

주체혁명의 억년 청청함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부흥강국의 주인공들답게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높이 강대한 조국을 떠받드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로 억세게 자라날 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결의가 분출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아버지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은 나라 아이들에게 따듯한 축복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 내 조국의 날과 달들은 아이들의 웃음던친 기쁨의 세월로 영원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영원한 주제로 세세년년 울려퍼질것이라는것을 확인하시면서 학생소년들과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농기계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 승리에로의 도약을 위한 총진군기세로 2024년의 힘찬 보무를 내짚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열기가 비상이 앙양되고있는 속에 나라의 농기계공업 발전방향을 명백히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농기계전시회 《농기계공업발전-2023》이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월 2일 농기계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전시회장에는 각종 트랙터, 모내기계, 농업용무인자동차, 밀보리 파종기, 이동식강병이 종합탈곡기를 비롯하여 농업위원회와 련관부문의 협동밑에 설계제작된 수백여종의 농기계들이 전시되였다.



적이며 성능높은 농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밝힌 농산작업의 기계화 목표실현에서 수자보다 질이 우선이고 기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현존농기계제작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적인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농기계공업분야에서 비약적개변을 안아오는 것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고 또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발전전략을 정확히 수립하고 농기계생산부문의 현대화와 능력조성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시된 농기계들을 보시면서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농기계생산

단위와 련관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 문제들과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는 효를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비상이 앙양시켜주며 련일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대형발사대차들과 각종 군용대차들을 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지난 한해동안에 진행한 대차생산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이 2023년을 국방력강화에 크게 아로새길 변혁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중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목표점령투쟁을 기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전략미사일발사대차생산을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최종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총열기해 떨쳐나서 우리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적인 생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

진다고, 이 공장 로동계급과 같이 애국열로 충만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절대성을 체질화하고있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고 직장별, 작업반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면서 투쟁열풍을 세차게 고조시키고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내세우고있으며 종업원들이 뜨거운 공장애를 지니고 일터를 알뜰히 관리해나가며 높은 로동생산문화적환경을 확립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현정세하에서 우리가 위임없이 추진하고있는 국가방위력강화의 역사적과업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서 각종 전술 및 전략무기발사대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우리 군대의 작전상수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당면한 발사대차형별 생산계획과 전망적인 생산계획 및 생산능력조성에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를 보다

급진적으로 현대화할수 있게 공장은 생산투쟁에서 비약적성과를 계속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능력확장과 관련한 중요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생산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의 사상과 신념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을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국방력강화의 제일선에 서있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일관하게 강화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키고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군수공업정책관철에 힘껏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앞

존경하는 허종만동지, 우리 국가의 존위와 국력을 우주만리에 궁지높이 आरो세긴 잊을수 없는 2023년을 보내고 위대한 새 승리로 빛날 2024년을 맞으며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창건 75돌 경축행사를 비롯한 여러 정치문화축전들과 애국과업수행을 통하여 총련의 본래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애국적인 대중운동, 혁신적인 경쟁운동을 즐기차게 벌려 총련부흥의 위대한 발전행로에 뚜렷한 자욱을 आरो세기였습니다.

이역의 모진 고난속에서도 항상 사회주의조국으로 향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성심을 기울여준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올해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정히 모시고 애국애족의 진합없는 헌신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총련일군들과 사랑하는 동포들모두가 건강하고 가정들마다에 기쁨과 행복이 면면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

주제 113 (2024) 년 1월 1일

환하신 그 미소를 온 우리들 밝힌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기약되었는 격동의 2024년 새 아침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려는 무한한 신심이 꿰어오르는 열정을 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웅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해

자애로운 어머니의 해빛같은 미소

뜻깊은 2024년 신년경축대공원에서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를 뵈으며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는 무한한 행복과 긍지로 가슴뿌듯해짐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에서 락을 찾으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들에게 탄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고 인민을 위한 본보기적실체들, 훌륭한 창조물이 마련될 때면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리도 환히 웃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지금도 눈앞에 뜨겁게 어리어나.

지난해 4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 살림집공공시장에 나오시여 몸소 준공예를 꿰어주시며 그리도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둘러보며 지난해에도 공화국의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와 조련치 않은 국면이 가로놓여있었다.

하지만 인민이 제일 기다리고 반기는 사업,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그토록 극난한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새 리상거리가 솟아오르게 되었다.

인민과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드물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새 살림집건설을 국가의 최중대사항으로 내세우시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자가 되시어 무려 1630여 건이나 되는 화성지구 1단계 형성안을 보여주시며 인민의 새 거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설수 있도록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으며 화성지구 1단계 1만세 살림집건설확공식때에는 몸소 착공식장으로 나오시여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명령기를 더욱 빛내이지》라는 뜻깊은 연설로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 주시었다.

2024년의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질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절세위인의 태양의 미소는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환하신 웃음, 그 빛나는 태양의 웃음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확인하고있다.

이렇게 자신의 천만고생을 몰러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준공식때에는 그 모든 성과를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었고 새집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이의 환하신 미소에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이 함축되어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짐을 더없는 영애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변혁적실체들이 이 땅에 솟아나고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화폭들이 런던이 펼쳐졌던가.

뒤서져보면 인민의 새 거리들과 훌륭한 농촌문화주택들이 도

정의의 수호자, 강자의 호랑환 웃음

경애하는 그이의 환하신 미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정의의 수호자, 최강자의 웃음이다. 국력중국의 국력은 군력이다.

힘이 약하면 짓밟히고 정의와 량심도 지킬수 없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그러나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강권과 전횡이 공화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정의의 힘의 최고체현자,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령도하시기 때문이다.

절대적합, 초강력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몽개버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조선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 후손들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심장깊이 안고 살아야 할 뜨거운 진정의 토로가 있었다.

위험한 계선으로 더 나가시면 절대로 안된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회생을 각오하셨고 왔다. 이 퍼어린 길을 자신께서 가야지 후대들이 또 걸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시며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까지 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처에 일떠서 년초부터 년말까지 새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하였고 풍년로적거리가 높이높이 쌓아져 행복의 춤물결이 농촌마다 펼쳐졌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마다에는 공화국의 육아정책에 의해 날마다 차려지는 젓제품을 먹는 어린이들의 웃음이 차넘치고 거리와 마을길들마다에서는 새 교복, 새 책가방을 받아안고 밝게 웃으며 학교로 오가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리의것이 대한 궁지와 자부심, 조국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설사 물혈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강강병의 세기적대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신분이 바로 불세출의 영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이다.

지난해 우주만리에까지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행성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 메아리친다.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로 된다고,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고위해은 무모한 반공화국군사대결광기를 이해의 마감까지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 위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 지와 절대적합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궁지높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우리 인민과 우리 후대들이 영연히 전쟁을 모르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비축하였고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전면적 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시대가 펼쳐졌다.

공화국의 절대적합이 억척으로 다져지던 날날 공화국인민은, 아니 세계는 지인과 화원들에서 발사훈련과 《화성포-18》형식 발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충하였다.

인민의 영연한 존엄과 안녕을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함 령도에 의해 지난해에는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발전을 더욱 다그치는 선행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식 발사훈련과 《화성포-18》형식 발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충하였다.

또한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영습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기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전술핵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립전태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민족의 녀, 애국의 녀를 곳곳이 이어나가는 재일동포들이 새해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절세위인의 축복을 받아안았다.

희망찬 새해 2024년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주시었다.

이역의 모진 고난속에서도 항상 사회주의조국으로 향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성심을 기울여준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자구구 열화와 같은 동포애가 뜨겁게 어리었는 절세위인의 따뜻한 축복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고쳐치는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 해외동포들은 많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과 같이 행복한 해외동포들은 없다는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바람새찬 이북땅에서도 우리의 국기를 소중히 품어안고 어머니조국의 통일변영과 총련의 강성부흥에 아낌없는 지성을 고여준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앞으로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과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동포들의 존엄과 권익, 귀여운 동료자녀들의 꿈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동포들모두가 무병무

이역의 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

말하고 동포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새해축전을 받아안고 동포사회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난해에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고 절을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화국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을 계기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기 위한 여러 행사와 모임들을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기지로 추켜들고 그 관철을

이역의 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총련의 모든 활동은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고 일관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중운동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이 뜨거운 혈연의 정을 안고 재일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지 않다. 민주주의정민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도

민중주의정민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도

민중주의정민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도

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공화국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과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 생명보다 귀중할것이 민족자존이다. 조국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설사 물혈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강강병의 세기적대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신분이 바로 불세출의 영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이다.

지난해 우주만리에까지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행성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 메아리친다.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로 된다고, 우리의 거듭되는 엄정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고위해은 무모한 반공화국군사대결광기를 이해의 마감까지 광란적으로 극대화하고있는 적대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고, 위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 지와 절대적합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궁지높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우리 인민과 우리 후대들이 영연히 전쟁을 모르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비축하였고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전면적 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시대가 펼쳐졌다.

공화국의 절대적합이 억척으로 다져지던 날날 공화국인민은, 아니 세계는 지인과 화원들에서 발사훈련과 《화성포-18》형식 발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충하였다.

인민의 영연한 존엄과 안녕을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함 령도에 의해 지난해에는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발전을 더욱 다그치는 선행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식 발사훈련과 《화성포-18》형식 발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충하였다.

또한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영습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기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전술핵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립전태

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를 꽃피우는 사랑의 미소

오늘 세계에는 막강한 국력을 자부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적부자가 넘쳐나도, 방대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없는 나라에는 앞날이 없다.

그것은 후대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이기때문이다.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계승자들의 대우를 가진 나라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송송장구하게 된다. 진정한 강국이란 바로 이런 나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후대들의 행복된 모습에서 제일 큰 기쁨을 느끼시며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이다.

지금도 만사련의 시금을 울려주는 뜨거운 화폭이 있다. 2023년 새해 첫날 조선소년단 9기차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변영의 새로운 한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흔들림없는 초강경대응의 지와 절대적합을 다시금 똑똑히 시위하였다고 궁지높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우리 인민과 우리 후대들이 영연히 전쟁을 모르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비축하였고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전면적 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시대가 펼쳐졌다.

공화국의 절대적합이 억척으로 다져지던 날날 공화국인민은, 아니 세계는 지인과 화원들에서 발사훈련과 《화성포-18》형식 발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충하였다.

또한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영습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기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전술핵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립전태

환하신 미소에서 공화국인민은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을 보고있다.

미래를 꽃피우는 사랑의 미소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과 《해바라기》학습용품마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열도가 그대로 비껴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타산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 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땀 땀을 맺고서라도 더 많은 인민을 키우도록 조국의 미래를 밝아진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힘을 더해주시어 공화국이 전진하고 끝없이 강해지고있다.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치시고 후대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할것이다.

* *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장에서 울리던 절세위인의 말씀이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천만민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약속히 천서하시면서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앞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반드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리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이 분기해나섰다.

《력사적인 당전원회의에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며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보이며 우리 공장, 근로자들은 올해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황홀한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달려하시며 우리들은 또 승리하였다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이가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행복이 비껴있고 휘황한 미래가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풍년가을을 부르는 《농기계백화점》

현대적인 농기계생산태도를 구축하여 농업에 현대성과 선진성을 부여하고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면서도 알뜰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려는 것은 김정은원수님의 드립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새해 2024년의 힘찬 보무를 내걸은 공화국인민의 열기가 비상히 앙양되고있는 속에 지난 1월 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방향을 명백히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 보셨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농기계들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시기 농기계공업분야에서 비약적개변을 안아오는것은 혁명의 필박한 요구이고 또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발전전략을 정확히 수립하고 농기계생산부문의 현대화와 능력조성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었다.

돌이켜보면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정력적인 헌신이 있어 최근 몇해동안에 공화국에서는 농업생산의 기계화수준을 강화된 농기계발전전략에 비상이 강화되고 농업발전의 획기적전환기가 열릴수 있었다.

농기계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은 농사를 할하게 지으면서도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

수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노력도 절약하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마다 농촌기계화문제를 더없이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해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농기계생산 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의 구상은 금성트랙도르 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트랙도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특별중대 조치를 취하여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생산에 현대성을 띠고 선진성을 부여하는데서 제일 절실히 효과적인 새롭고 능률높은 농기계를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며 농기계부문을 혁신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언제인가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느한 농기계전시장을 찾으며 자신께서 가지고오신 현대적인 농기계에 대한 자료를 일군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를 종합적계획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전문을 넓혀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도 잘 알고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울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로 2022년 9월에는 황남에서 5 500대의 농기계열병식이 진행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군수공업, 기계공업부분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생조기기를 비롯한 1만여대의 농기계가 가을걷이와 탈곡, 가을 밭, 보리씨뿌리기로 들끓는 농촌들에 보내졌다.

이 모든것은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알리는 또 하나의 사변이고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농촌기계화수준의 일대 과시이며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은 지난해 8월의 숭고한 화폭을 잊지 못하고 있다.

감탕물이 허리를 치는 안식간석의 논밭에 서슴없이 들어서서 논벼의 생육상태를 세심히

료해하시며 피해복구대책을 세워 주시는데 이어 곁잡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나라의 농업발전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는 금성트랙도르공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시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에서 금성트랙도르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공장의 개건현대화실태를 료해하고 앞으로 도달하여야 할 투쟁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한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 유압기구조조장과 여러 가공직장, 조립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로동체계가 만든 소형버수확기도 움직여보시고 종합수확기도 움직여보시며 종합수확기에서 새 트랙도르를 장착하는 때에는 오늘 금성트랙도르공장에서 생산한 트랙도르를 한번 운전해보자고 한다고 하시며 몸소 트랙도르에 오르시어 그 성능을 직접 료해하시었다.

현실성있는 농기계발전전략을 세우고 농기계공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떠받들려 전국의 농촌들마다에 현대적인 농기계를 농사를 종결해 주는 새 풍경과 함께 풍요한 황금가을이 눈부시게 펼쳐질수 있었다.

2024년의 새로운 진군길에 나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굳게 확신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사회주의농촌의 앞날은 밝고 휘황찬란하다고. **본시기자 김강철**

—최치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과 나눈 대담—

우리의 과학기술을 첨단수준으로

공화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새해에 과학기술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해나갈 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최치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최치명: 지난해 미더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주력시키고 중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책체철련합기업소의 넓은 체철공정을 승주리체 철어내고 우리 식의 에너지를 절약형산소열병용광로와 1만 5 000m³/h 산소분리기들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정성운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천리마체철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지체를 함쳐 초고전력 전기기로 주체철련속장입기술을 연구도입함으로써 강철생산을 정상

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과학자들도 황해체철련합기업소 산소열병용광로에 새 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선철의 질을 보다 개선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농성기계련합기업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화학비료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대형암추기제작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에 비해 생산성과 정밀도가 더 높은 선반을 제작함으로써 선반의 고속화, 정밀화를 실현할수 있게 한 성과에도 국가과학원과 구성공작기계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집어린 노력이 깃들여있다.

평양기계대학에서도 현실에서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맡아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80hp 트랙도르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기자: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도 많이 이룩되었다고 본다.

최치명: 그렇다. 계몽상사리련농업대학의 과학자들은 지역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복합미생물비료를 농업생산에 도입하여 정교양알곡생산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양농업대학의 과학자들은 논밭두루가을밀재배에서 품종선별과 합리적인 파종량, 시기별에 따르는 비료시비량 등 과학적인 밀다수확재배기술을 확립하고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지역들에 도입하여 수만의 밀을 증수하도록 하였다.

농업위원회,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여러가지



농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십여종의 농기계를 개발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주었다.

국가과학원과 묘향산의로기구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의로기구개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질이 높은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와 치과종합치료기, 인공호흡기, 탈세동기를 개발함으로써 의로기구들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중시적이고 걸린력이 강한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을 목적지향성있게 설정하고 과학연구력량을 집중하여 집행해나가는 체계를 세우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통일적으로 지휘관리하는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 과학기술자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사회진보와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목표들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혁신적인 투쟁기풍과 인민새를 안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실현을 위한 힘찬 진군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해나가겠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혁신적인 투쟁기풍과 인민새를 안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실현을 위한 힘찬 진군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해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황해남도에 내려가어주시는 농기계를 (2022년 9월)

《새해에 우리 농민들이 제일먼저 큰 복을 받아안았습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대의 광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습니다.

당에서 뜨거운 사랑과 배려 속에 회한 새집을 받아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의장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감사를 받아안고 뽕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 농사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알곡고지점령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명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조치들을 띠어 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전원회의장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감사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심입니다.

우리들은 올해에도 농업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애국의 맘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중대를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하겠습니다.

평성시 자산농장 제2작업반 농장원 한명순

유 다른 저녁 일과

얼마전 우리 분조원들은 한낱한시에 나라에서 지어준 새 보급자리를 받아안았습니다.

그때부터 분조원들의 가정에는 유다른 저녁일과가 생겨났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친척들과 친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 집자리를 하는것입니다.

어떤 농장원들은 조족보위 초소에 선 자식들에게 새집을 받은 소식과 함께 다수확 농장원이 되려는 결의를 담아 밭길로 돌리기를 쓰기도 합니다.

나 역시 친척, 친우들에게 새 집자리를 하느라 저녁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등이 갖추어진 멋진 살림집을 평범한 농장원 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받아안았으니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에 볼드 없는 인민의 나라입니다.

새해에 풍년나리리를 더 높이 쌓아올려 나라의 쌀곡을 채우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승림시 청운농장 제3작업반 분조장 김철만

한 처녀들격대원의 모습에서

이머 왜서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구봉령일을 잊지 못해하는것인가.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구봉령에 갈때, 더우기 인척드문 산골에서 수심년세월 도로를 관리하는 구봉령일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일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사시절 령길을 관리하느라 별과 바람에 그늘리고 손마디가 굼어지던 오랜 도로관리원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의 마음을 고결한 랑심을 읽으시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온다. 가족소대원이 10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

즐거운 새해명절날 아침이었다. 선교구역 선교2동에 살고있는 강운재전생로병의 집에 초인종소리가 정답게 울리었다.

《아버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떠받들려 전국의 농촌들마다에 현대적인 농기계를 농사를 종결해 주는 새 풍경과 함께 풍요한 황금가을이 눈부시게 펼쳐질수 있었다.》

친아버지를 찾듯이 스름없이 들어서서 그는 선교구역복합물자보장사업소의 황일선소장이었다.

이제는 하도 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싶어만 지는 황일선소장을 반갑게 맞이하는 강운재로병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 실리었다.

강운재로병과 황일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어느날 강운재로병은 길을 가던중 뜻하지 않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때 로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람이 바로 황일선이었다. 로인이 입원한 후에도 그는 친

머칠친 우리는 청년관으로 세차게 돌고있는 서포지구의 전위거리건물상을 지면에 담고싶어 그곳을 찾았다.

우리가 배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나뭇기는 어느날 살림집건설장을 찾았을 때였다.

마침 작업의 철참인터이오 오락회가 한창이었다.

... 그 누가 오라고 해서 내 왔던가 그 무엇을 바라고 내 여기 왔던가 우리 수령님 지나가실 우리 장군님 지나가실 여기

리없는 주추돌 되리라 내 여기 왔노라

복스럽게 생긴 한 처녀들격대원이 격동된 어조로 시를 읊고있었다. 남다른 사연을 전하는가싶은 시구절에 끌리어 랑독자를 유심히 바라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처녀가?!) 20여년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구봉령의 가족소대원들을 만나주셨던 그날 어떤 행복이 자에게 차츰차츰도 모르고 엄마의 품에서 잠만 잤던 아기,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아는 구봉령의 고후회였던것이다.

그날 아기의 엄마가 혼들며 깨우려는것을 보시고 그냥 놔두라고, 이마에 커서 기념사진을 보면 후회할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다정다정하신 음성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해주었던가. 그날을 잊지 말라고 부모들은

아버지를 돌보는 심정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는 날까지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이 나날 강운재로병과 황일선은 친혈육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후에도 황일선은 명절날,

양력설날에 찾아온 《아들딸》들

생일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부모를 찾아뵙듯이 로병의 가정은 자주 찾곤 하였다.

선기가 날새라, 계절이 바뀔새라 로병의 건강문제와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주며 바쁜 출장길에서도 로병의 병치료에 좋은 보약제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색다른것이 생겨도 로병을 먼저 생각하곤 하였다.

강운재로병과 황일선소장이 한창 한식출처럼 기쁨을 나누고있

아기의 이름을 후회라고 지었다. 만단사연을 안고있는 그날의 주인공을 자랑이 아닌 우리 건설장에서 만나게 된 놀라움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처녀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의할머니가 결고 부모들이 결고있는 그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구봉령의 참된 딸로 살고싶어 여기에 왔습시다.》

구봉령의 참된 딸로! 생일이 많아졌다. 과연 구봉령은 어떤 령이기에 한 처녀의 정신적기둥으로 마음속에 거연히 서있는것

이 쉬운 일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요,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다정다정하신 음성이...

구봉령일가에게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끝없이 이어졌다.

언제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때 얼마에서 잠을 자던 후회하가 잘 자라라는, 그에게 나를 맡아볼가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구봉령에 갈때, 더우기 인척드문 산골에서 수심년세월 도로를 관리하는 구봉령일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일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사시절 령길을 관리하느라 별과 바람에 그늘리고 손마디가 굼어지던 오랜 도로관리원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의 마음을 고결한 랑심을 읽으시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온다. 가족소대원이 10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

는데 초인종소리가 또다시 울리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 〈딸〉이 왔습시다.》라며 한 녀성이 들어섰다.

그는 강운재전생로병과 혈연의

강운재로병이 훌륭한 딸이 생겼다고 고마워할 때마다 박세복녀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병동지들이 앉아서기만 해도 우리에게도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고, 로병동지의 딸이 된것은 궁지이고 자랑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로병의 가정을 찾아와 극진히 위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있다.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이렇듯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강운재로병이다.

양력설날에 찾아온 《아들딸》들, 여기에는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존경하는 세대대들의 고결한 마음과 함께 덕과 정으로 화목한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도 알아보고 도와

이 쉬운 일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요,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다정다정하신 음성이...

구봉령일가에게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끝없이 이어졌다.

언제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때 얼마에서 잠을 자던 후회하가 잘 자라라는, 그에게 나를 맡아볼가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구봉령에 갈때, 더우기 인척드문 산골에서 수심년세월 도로를 관리하는 구봉령일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일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사시절 령길을 관리하느라 별과 바람에 그늘리고 손마디가 굼어지던 오랜 도로관리원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의 마음을 고결한 랑심을 읽으시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온다. 가족소대원이 10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

주고있었다.

강운재로병이 훌륭한 딸이 생겼다고 고마워할 때마다 박세복녀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병동지들이 앉아서기만 해도 우리에게도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고, 로병동지의 딸이 된것은 궁지이고 자랑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로병의 가정을 찾아와 극진히 위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있다.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이렇듯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강운재로병이다.

양력설날에 찾아온 《아들딸》들, 여기에는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존경하는 세대대들의 고결한 마음과 함께 덕과 정으로 화목한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 자주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도 알아보고 도와

이 쉬운 일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요,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다정다정하신 음성이...

구봉령일가에게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끝없이 이어졌다.

언제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때 얼마에서 잠을 자던 후회하가 잘 자라라는, 그에게 나를 맡아볼가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구봉령에 갈때, 더우기 인척드문 산골에서 수심년세월 도로를 관리하는 구봉령일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일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사시절 령길을 관리하느라 별과 바람에 그늘리고 손마디가 굼어지던 오랜 도로관리원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의 마음을 고결한 랑심을 읽으시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온다. 가족소대원이 10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20여년전까지만 해도 구봉령에 갈때, 더우기 인척드문 산골에서 수심년세월 도로를 관리하는 구봉령일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일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눈앞에 뜨겁게 어려온다. 사시절 령길을 관리하느라 별과 바람에 그늘리고 손마디가 굼어지던 오랜 도로관리원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의 마음을 고결한 랑심을 읽으시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리고 귀전에 들려온다. 가족소대원이 10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

비참한 괴멸을 불러오는 무모한 망동

피뢰군부호전세력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반공화국전쟁대결격투에 광분하고있다. 피뢰군부두머리들이 새해벽두부터 피뢰군부대들을 돌아치며 《북의 도발적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느니, 《압도적인 능력과 굳건한 대비태세확립》이니 하며 호전적격투를 부렸다. 이러한 가운데 피뢰군부대들이 새해 첫 포탄사격과 기계화부대기동훈련을 강행하고 피뢰군부대사령부에서는 《철전지극복헌원》이라는 것을 빌려놓았으며 피뢰해군은 동, 서, 남해 전 해역에서 함포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피뢰호전파들의 추

악한 대결본색의 발로로서 극도로 격화된 정세를 전쟁발발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그 누구의 《정권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면서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위신통선언》을 조작하고 핵무기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그 루배)》을 신설, 가동시켰으며 이를 도용하여 공공연히 세계면전에서 반공화국핵전쟁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있는 것도, 빈번히 모여앉아 반공화국압살모의를 벌이고있는 것도, 핵전력자산을 편속적으로 조선반도지역에 투입하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

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피뢰적당을 그리고 일본정권들이다. 최근에 피뢰적당들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며 8월에 들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기간에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시행한다는것을 세계의 면전에서 공개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이러한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며 전쟁대결책동에 미쳐달뛰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공화국의 강대무

비한 절대적힘에 빠다귀도 추리지 못할 미국의 식민지출개파들이 《압도적대응》이니, 《파멸의 전주곡》이니 하는 호전적나발을 내뿜으며 가소롭게 놀아대는것이야말로 논란의 허수아비도 양친대소할 가소로운 자멸적망동이다. 피뢰적당들은 대결야망에 헛된 나머지 겁기도 없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설쳐며 비참한 괴멸을 자초하고있다. 어리석은자들, 분별을 모르고 날뛰는 미치광이들의 알뜰한 인제나 비참하기마련이다. 피뢰호전파들이 새해에 들어와 더욱 열된 대결자세로 화약내질은 무력시위에 몰두할수록 내부의 안보위기와 내외의 강력한 규탄만 가증될 것이다.

최근 윤석열역적당이 《(북인권)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느니, 《(북인권)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느니 하며 그 무슨 《북인권문제》라는것을 유엔안전보장사회의 공식제로 고착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구실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깎아내리고 나아가서 반공화국압살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범죄책동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나라,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이 국풍으로 되어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지난 한해에도 공화국에서는 수만대의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현대적인 세

림집들을 받아안은것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인민적시책들이 련이어 펼쳐져 인민이 터치는 사회주의 만세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다. 량심들이 반공화국적인 세정치, 새 생활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이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가혹한 탄압을 받는가 하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마저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다.

인권은 운운할 체면이나 자격도 없는 인권유린장초, 세계인권피고서에 앉아야 할 특등범죄집단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러한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철폐의 극치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금 피뢰지역에서 련일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윤석열역도된 전투쟁은 온 피뢰지역을 인권불모지, 인권의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윤석열역적당에 대한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다. 역적당들이 그 무슨 《북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인권유린범죄, 피뢰지역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가리우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홍심에 따른것이다. 윤석열역적당들이 아무리 《인권》라함을 늘어놓아도 극악한 인권유린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당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격투를 부리고있는것은 뼈속까지 차있는 반공화국대결야망의 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은 다름아닌 피뢰적당들이고 세계최악의 인권폐해지대도 바로 피뢰지역이다. 피뢰지역에서는 《유신》과 쏘속제도 무색케 할 악명높은 검찰독재의 출현으로 정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의 《인권》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당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격투를 부리고있는것은 뼈속까지 차있는 반공화국대결야망의 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은 다름아닌 피뢰적당들이고 세계최악의 인권폐해지대도 바로 피뢰지역이다. 피뢰지역에서는 《유신》과 쏘속제도 무색케 할 악명높은 검찰독재의 출현으로 정

부패행위를 여론화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것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을 민심으로 얻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김건희는 최근에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 독선과 전횡

을 부리는 윤석열역도를 등대고 값싼 뇌물을 받는 등 민심과 여론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문제는 피뢰적당들이 김건희의 부정부패사건을 저들의 당리당략을 실현하기 위한 리용물로 삼고있는것이다. 피뢰적당들은 김건희의 부정



본사기자 김정혁

올해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피뢰적당들끼리 대립과 당내모순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김건희특별검사법》을 놓고 여야당파격투들이 벌리고 있는 판두국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지난 해 말 피뢰국회에서는 《김건희의 도이치모리스 추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건희특별검사법》)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 힘》것들은 《비민주적약법독주와 민심교란행위》, 《야당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특검법》, 《총선인식교란 악

법》이라고 아부제기를 치며 윤석열역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이 《용담》하다고 고아였다. 이에 대해 야당것들은 《특검이 악법이라는 여당의 억지

회가 지난 기간 추가조작 등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사리사욕을 추구해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김건희는 최근에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 독선과 전횡

부패행위를 여론화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것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을 민심으로 얻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김건희는 최근에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 독선과 전횡

을 부리는 윤석열역도를 등대고 값싼 뇌물을 받는 등 민심과 여론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문제는 피뢰적당들이 김건희의 부정부패사건을 저들의 당리당략을 실현하기 위한 리용물로 삼고있는것이다. 피뢰적당들은 김건희의 부정

민생을 내팽개친 권력쟁탈전 - 《검투사정치》

야말로 오만한 《선민익의 발로》라고 까뻐하면서 《(국민의 힘)은 억지부리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반박해나갔다. 또한 야당것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역도의 너편대 김건

회를 부리는 윤석열역도를 등대고 값싼 뇌물을 받는 등 민심과 여론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문제는 피뢰적당들이 김건희의 부정부패사건을 저들의 당리당략을 실현하기 위한 리용물로 삼고있는것이다. 피뢰적당들은 김건희의 부정

부패행위를 여론화하고 법적 처벌을 가하는것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을 민심으로 얻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김건희는 최근에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아 독선과 전횡

을 부리는 윤석열역도를 등대고 값싼 뇌물을 받는 등 민심과 여론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문제는 피뢰적당들이 김건희의 부정부패사건을 저들의 당리당략을 실현하기 위한 리용물로 삼고있는것이다. 피뢰적당들은 김건희의 부정

피뢰지역의 각계층에서 지난 2023년이 윤석열역적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무지, 무능으로 각종 재난과 범죄로 얼룩졌다는 개탄과 저주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재난민곡》

지난 한해는 피뢰지역에서 각종 사고와 재해, 참사들이 끊길줄 모르고 련발한 재난의 해였다. 윤석열역도는 2022년말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하여 《재난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2023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 참사로 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23년 8월까지 피뢰지역에서는 각종 산업재해로 13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이것은 지난 2018년 한해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사망자수 106명보다 20%이상, 2022년 같은 기간의 사망자수보다 10% 이상 늘어났기라고 한다. 하기에 피뢰지역의 노동자들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저들의 안위나 기업들의 리익만 챙기면서 힘없는 사회약자를 청소하듯이 해마다 2 400여명이나 죽이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당을 저주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큰물과 산사태를 비롯한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지난해 7월에는 1만 9 000여명의 리해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당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방치대책을 세우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뻔뻔스럽게 늘어내고있다. 피뢰지역의 각계층은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피뢰지역이 재난이 일상화된 《재난민국》으로 되었다. 이제는 재난위험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았다. 《후진국형사고》와 재해, 참사가 반복되고있지만 책임지는자도, 해결책도 전혀 없다. 윤석열(정권) 밑에서는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라고 원성을 터뜨리고있다고 한다.

《범죄왕국》

피뢰지역에서는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조직폭력배들이 더욱 활개치고 《강남랍치살해사건》, 《신림역홍기탄동사건》, 《서현역홍기탄동사건》과 같은 《홍악범죄》, 강력범죄가 매일같이 발생하여 사회를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고있다. 《폭력화학을 보고 살인충동을 느꼈다.》 이것이 강력범죄자들의 범죄동기중의 하나이다. 피뢰지역에서는 마약사유, 마약판매 등 마약범죄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체포된 마약범죄자만 하여도 2만 2 300여명으로서 2022년의 1만 5 100여명에 비해 47%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약범죄자의 34.6%가 10대, 20대청소년들이며 재범률의 자식들은 권력과 돈을 휘두르며 빼앗아 일상적으로 마약을 탐용하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뢰지역의 언론들은 남조선이 《재난민국》, 《범죄왕국》으로 전락된것을 《2023년 10대뉴스》로 정하였다. 썩어빠진 폭력문화, 살인문화가 범람하고 부인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인권폐해지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존법칙이 지배하고있는 인간생지옥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본사기자 한복순

《미국과 윤석열일당의 전쟁기도를 파탄시키자!》, 《독도주권 포기시도 윤석열을 탄핵하자!》

피뢰지역에서 미일상선의 식민지 출개가 되어 평화파괴, 경제파탄, 민생파탄, 각종 참사를 빚어낸 윤석열독주들을 반드시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각계층의 투쟁이 지난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힘차게 전개되었다.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은 조선반도의 전쟁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언제라도 작은 불씨가 터져 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되고있다. 윤석열(정권)은 바다로 내려가고있는 지지력을 줄이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작하고 있다.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안중에는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눈곱만큼도 없다. 오로지 저들의 권력과 리익을 유지할수 있다면 전쟁이라는 무모한 늑둠도 할 존재들이 이러한 속에 지난해 12월 30일 서

울에서 《조보행동》의 주최로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제7차 조보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김건희퇴직 거부하면 탄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수많은 각계층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각계의 투쟁에 의해 《국회》에서 《김건희특별검사법》이 통과되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마침내 윤석열의 너편대인 김건희를 처벌할수 있게 되었다. 김건희는 부정부패행위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만일 윤석열이 제 너편대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해나선다면 곧바로 집권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악랄한 검찰독재의 목적을 반드시 파탄시켜야 한다. 김건희가 반드시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근 윤석열역적당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한것과 관련하여서도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바란것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조선반도의 체제를 노리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이번 사건은 독도를 스스로 분쟁지역화한 참사이다. 윤석열역당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안보위기》를 운운하지만 진짜안보위기를 부르는것은 바로 그들자신이 라고 역적당들의 친일사대대국행위를 단죄하면서 윤석열역적당을 초월선의 힘으로 단호히 처벌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독도주권 포기 시도 윤석열을 탄핵하자!》, 《살인 집단 매몰집단 정치검찰 해체하라!》, 《김건희퇴직 거부하면 윤석

열 탄핵하자!》, 《김건희는 특검하고 윤석열은 탄핵하자!》, 《범죄비호 특검방해 국힘당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부천조보행동》의 주최로 윤석열역적당들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피뢰지역 언론들은 온갖 악정만을 일삼는 윤석열역적당을 단죄해적하는 각계층의 이러한 투쟁과 관련하여 몰아치는 진눈깨비에도 조부투쟁기세는 높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퇴진과 김건희퇴직의 함성이 연방 울려퍼졌다. 2023년 마지막조부투쟁을 벌리는 참가자들의 새해소원은 윤석열탄핵이다. 윤석열 심판을 위한 대중적항쟁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라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조종의 산 백두산은 유구한 우리 민족사의 발상지

— 해산시 강구동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유물 발굴 —



신석기시대 집자리에서 나온 석기 및 질그릇조각들



청동기시대 집 자리에서 나온 질그릇조각들



석기 및 골각기들 집 자리에서 나온

최근 백두산일대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생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민족유산보호국 조선민족유산보호국의 연구자들은 강강도인민위원회와 해산시인민위원회, 김정숙사범대학을 비롯한 도안의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해산시 강구동에서 유적유물들을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굴된 2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4개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17종에 263점이다.

집자리들은 대체로 땅을 파고 나무기둥을 세워 만들었던 움형식의 집자리들이다.

신석기시대의 집자리들에서는 전나무잎무늬그릇과 평행사선무늬그릇, 점선무늬그릇 등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새김무늬질그릇조각들과 돌도끼, 흑요석기 등 석기들이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에서는 구멍줄무늬그릇, 점선간그릇을 비롯한 질그릇조각들과 함께 석기들, 골각기들이 발굴되었다.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생활환경을 잘 보여준다.

다. 석기와 골각기는 12종에 60점, 질그릇조각은 5종에 203점에 달한다.

발굴된 유적유물들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후기(6 000년전)와 청동기시대(4 000년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학계에서 우리 민족이 철기시대부터 백두산일대를 개척하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고 보던 견해를 새롭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새로 발굴한 유적유물에 대한 연구정형을 심의하고 집자리들은 6 000년전에 해당되는 신석기시대 후기와 4 000년전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해산시 강구동에서 신석기시대 후기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유물이 발굴된 것은 우리 선조들이 6 000년전인 신석기시대에 벌써 백두산 일대를 개척하고 번영하며 생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발굴성과이며 백두산이 우리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종의 상징이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라는 것을 입증하여 준다.

홍영미



인민배우 김세영

망국의 세월이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은 김세영은 삼촌네 집에 얹혀살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갔다.

그에게 있어서 설움을 가겨주는 유일한 시간은 읍곡리에서 순회극단공연을 하던 때였는데 공연을 보려는 너무도 신중하게 흥미를 내어 배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배우가 될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은 그는 청주시 문화공단에 들어갔다.

이곳에 들어간지 몇년후에는 공단의 단장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동료들과 함께 공연을 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은 그들의 공연활동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일본방에서 쫓아냈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꺼져버렸던 희망의 싹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흥미의 정을 안고 연극 《장백산》에 출연하여 공연활동을 힘차게 벌여나갔다.

그러나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연극이 말살당하자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으며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 갖은 악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대에 의하여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김세영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예술인의 보람찬 새 삶을 누리게 되었다.

1950년대에 예술영화 《소년빨치산》에서 처음으로 연기를 맡은 그는 《도다리 건너오》, 《백두산이 보인다》, 《홍부전》, 《명랑한 무대》를 비롯한 수십편의 영화들에

출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때까지 별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독특한 연기형상을 창조하지 못하던 그에게 풍자극 《보충병》의 주역을 맡기도록 하여주시고 자기의 개성을 살리도록 결정을 이끌어주셨다.

이때부터 시작된 희극배우로서의 그의 삶은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다.

《안해의 일터》, 《공중무대》, 《두 선장》, 《북은 내가 치겠다》 등 많은 경회극적인 영화들에서 주역을 맡아 수행한 김세영은 인민들이 사랑하고 화에서 즐겨 찾는 인기배우가 되었다.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은 김세영은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주던 명배우로 사람들의 추억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썰매 타기

썰매타기는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이 즐기는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얼음판이나 눈우에서 썰매를 타는 운동놀이인 썰매타기는 조선봉건왕조초기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원래 눈우로 질풍같이 달리는 말과 같다고 하여 《설마》라고 부르던것을 점차 썰매로 부르게 되었다.

썰매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40cm, 너비 35cm, 높이 10cm정도였다.

썰매밑에는 얼음우에서 잘 미끄러지는 참대밭이나 쇠줄

력을 단련하고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주며 어린이정리정돈 습관이나 눈우에서의 물체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고 탐구력을 키워준다.

오늘 썰매타기는 그 형태와 놀이방법이 더 다양해지면서 적극 장려되고 있다.

본사기자



겨울철의 심한 추위는 피부를 쯤하고 혈압을 높이며 나아가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많이 준다.

그러나 겨울철기후는 일반적으로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정상생리기능을 자극하여 몸단련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후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몸단련은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데서뿐 아니라 운동효과도 비교적 좋으므로, 인내성, 강의를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겨울철에 몸단련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환절기와 봄철의 영향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여름철 무더위와 관련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몸단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해질무렵이다.

이때 인체반응의 강도 및 적응능력은 모두 최고에 이르며 맥박수와 혈압도 가장 고르롭다.

때문에 해질무렵에 운동을 하면 몸에 리로우 뿐 아니라 운동효과도 비교적 좋으므로, 인내성, 강의를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겨울철에 몸단련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환절기와 봄철의 영향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여름철 무더위와 관련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본사기자

1월의 절기와 민속

1월은 한해중에 제일 추운 달로서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소한과 대한이 이 시기에 든다.

민간에서는 소한부터 겨울 추위가 시작되어 가장 추운 때인 대한에 이른다고 하였다.

년중 제일 추운 때라는 뜻을 담고있는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이다.

농사를 치지않으므로 여겨온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소한과 대한이 드는 1월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집안에서 새끼를 꼬거나 삼태기를 엮었

으며 두엄을 모으는 등 그해 농사준비를 착실하게 하였다.

대한이 지나면 사람들은 음력설을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하기 위하여 집안팎을 알뜰하게 손질하였으며 녀성 무친 닭고기를 놓은 다음 뜨거운 닭고기국물을 부은 평양은반은 그 맛이 독특한 것으로 하여 소문이 났다.

또한 이 시기에 옷놀이와 함께 널뛰기, 연피우기, 썰매타기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 놀이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1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근면하고 다양한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련綿히 이어왔다.

올해의 소한은 1월 6일이 고 대한은 1월 20일이다.

본사기자

아름다운 우리 말

《싸락눈》은 싸레기같은 눈이라는 말이다.

《싸락눈》(쌀악눈)에서의 《악》은 《아기》가 줄어들어 뒤불이가 된것으로서 작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쌀악》은 부스런 쌀알같이 작은것이란 뜻이다.

《싸락눈》의 본래 말은 《쌀눈》이었는데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이 단어는 《쌀눈→쌀아기눈→쌀악눈→싸락눈》으로 변화하였다.

민간설화

닭알이 송아지로 되는 리치(3)

글 윤성배, 그림 채대성

설령탕의 유래

설령탕은 소의 내장, 대가리, 사등뼈, 발쪽 등을 함께 넣고 푹 끓인 국을 말한다.

《설령탕》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전해지고있다.

그 하나는 소의 내장, 대가리, 사등뼈, 발쪽 등 음식감들을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설령설령 끓인 국이라는 뜻에서 《설령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탕의 국물빛이 눈과 같이 흰뿐 아니라 오랜 시간 끓였기때문에 음식감들이 푹 익었다는 뜻에서 눈을 의미하는 《설》자와 무르누음을 뜻하는 《동》자를 써서 《설동탕》이라고 하던것이 점차 《설령탕》이라고 발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야기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어느한 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번은 왕이 나라에 흉년이 들기를 기원하여 선농단이란 곳에 가서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강지주는 이렇게 생각하며 리치를 따게 한단 말이요? 그게 리치에 맞는 소리요?

《그렇단 말이야. 아버의 성을 따는게 세상리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닭알을 낳기는 닭알이 낳았지만 저 닭알은 강타알이 아니겠냐?》

《그 말도 비슷하지요. 닭알이야 김가이든 강가이든 닭알이니까.》

《이보라구. 리치를 따진다면 그게 강타알인데 자네가 차지해서야 되겠네. 무릇 사람이 자식이 예비의 성을 따고 예비를 따르니까만인데 닭알이라고 해서 강타알을 김가가 가진다는게 리치에 맞는 일인가?》

《허, 강지주어른의 말을 듣고보니 리치인즉 그렇군요. 내가 그 리치를 몰랐으니 지금까지 우리 집 닭알이 낳았다고 그게 김가 닭알인가 해서 지냈는데 리치를 깨치고보니 그게 강지주어른의 닭알이었구려. 그 참, 사람은 리치를 배워야 제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군요.》

김선달은 움푹 일어서더니 해대에 손을 넣어 닭알을 집어가지고와서 강지주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어른신께서 환한 리치를 깨우쳐주지 않았더라



면 우리 닭이 강타알을 낳고 있었다는 리치도 모르고 살 번하었군요. 고맙소이다.》

강지주는 제가 제일 잘 안다는듯이 빼기며 대꾸하였다.

《고맙기까지야 뭘... 난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좋은 리치를 가르치고있는데. 예뻐, 그런데 세상에는 제 닭알을 낳으면 제 집 닭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수탉의 주인을 찾아주려고는 하지 않고 제것으로 수탉을 뺏 쓰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리치에 대해서 뉘몰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면 도깨비만 말이네. 사람이 도깨비짓이나 하고야 어떻게 하늘에 머리를 들고 살겠나?》

한쪽 앞으로로 자네네 닭알이 낳아도 김가 닭알을 낳았나? 강타알을 낳았을는 틀림없는 일이니 도깨비짓을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져오라구.》

《잘 알았수다. 이렇게 리치에 환하신 어른이 딱 옆에서 가르쳐주시는데 그 리치를 어저서야 안되지요. 어르신 말씀따라나 사람이 리치를 어기고 도깨비짓을 해서야 되겠나요? 안심하시우다.》

《암, 그래야지.》 강지주는 만족해서 닭알을 들고 제 집으로 들어갔다.

(오호호... 리치인즉 좋은 것일수밖에... 확실히 모자라는 놈이야. 그놈에게 리치를 먹였더니 닭알이 되었군. 오호호... 그런 리치라면 한 백 개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 다음날도 김선달은 《강타알》이라해서 닭알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에는 감감 무소식이였다.

(아니, 이자가 벌써 그 리치를 잊은게 아니야?)

강지주는 기다릴수만 없었다.



《여보게 선달이, 선달이 있나?》

올바라까지 다가간 강지주가 소리쳐 찾았다.

김선달이 창문을 열고 마당에 나서면서 《왜 그러시?》하고 물었다.

《오늘은 자네네 닭알이 우리 수탉의 알을 낳지 않았나?》

《하- 그놈의 강수탉이 판데 가서 외도질하는 바람에 우리 닭알이 독수공방의 과부처럼 지냈는지 알을 낳지 않았수다.》

《뉘, 우리 수탉이 외도질

을 했겠나?》

《리치가 그렇게 많소이까. 그놈 강수탉이 외도질을 안했다면야 우리 닭알이 알을 낳지 않을수가 없겠는데.》

《저 참 모를 일이다. 수탉이 외도질을 하다니?..》

강지주는 어쩔! 어쩔! 굳기침만 뚝뚝 메사해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번지는 날은 좀 잊어도 이리저리 한 서른 개의 닭알이 강지주 손에 들

리 수탉에게도 침을 몇마리 쏘아 넣어주세나.》

《글쎄웁시다. 그놈의 강수탉이 보기에선 난봉꾼같이 보이지만 알고보니 정절이 얼마나 굳은지 우리 집에도 닭알이 두마리가 있지만 다른 닭알에게는 도무지 결을 부치지 않으니 그놈은 마치 과부처럼 독수공방신세로 지내지 않소이까. 대체 그놈의 수탉이 리치에 밝으신 어른신에게서 일부일처제의 리치만을 배웠는지 다른 닭알은 얼선도 못하게 하니 이제 침을 넣어준다고 일부다처제의 리치를 깨닫거나 하겠는지 원...》 하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김선달이었다.

《뉘, 우리 수탉이 무슨 정절이 그렇게 굳겠나? 소박당하는 닭알이 예루니 든가 너무 못했겠으니 결에 가지 않겠지. 거 기생처럼 물고 빨은듯한 날선한 닭알이라면야 수컷이 모른척하겠나?》

《그건 왜?》

《아, 사람이 기생집에 출입하기 시작하면 난봉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닭이라고 법연할리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난봉바람이 날겠나. 그런 다음에 날선한 닭알을 침으로 얼어주면야...》

《설마...》

《설마가 뭘니까? 그게 리치상 옳으니 그놈의 수탉 난봉이 난 다음에 내 닭알침을 골라주리다.》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고 집안으로 사라졌다.

